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6일 목요일 음 3월 25일 (2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많았다. 아침 기온은 11~14℃, 낮 최고 기온은 20~22℃로 예상되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Weather (강수 확률, 구름 많음, 맑음, 흐림, 비, 눈, 서리, 안개, 안보임, 강수 확률)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일출, 일몰) and Time (05:41, 19:20, 03:03, 14:17)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구름 많음, 맑음) with temperature (17/24℃, 15/24℃)

월드뉴스

비행기서 깜짝 출산... 의료진 탑승 '행운'

스마트 위치로 아기 심박수 측정

미국의 한 국내선 비행기에서 임신 29주차 여성이 조산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함께 탑승했던 의사와 간호사가 출산을 도우며 파스한 행운으로 마무리됐다.



비행기에서 출산한 마용가와 아기.

4일(현지시간) AP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국내선 비행기에 마용가는 이름의 임신 29주차 여성이 가족 여행차 탑승했다가 갑작스러운 출산의 순간을 맞았다.

전문의의 도움 속에 마용가는 상공에서 무사히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일체의 의료장비 없이 진행된 출산에 의료진은 창의적으로 대응했다.

다급한 의료진 호출에 하와이 병원에서 의과사로 일하는 데일 글렌 박사와 북 캔자스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근무하는 3명의 간호사가 일제히 몸을 움직였다.

그들은 땀줄을 끊고 뭉기 위해 구두 끈을 동원했고, 신생아의 심박수를 재기 위해선 스마트 위치를 썼다. 글렌 박사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팀워크는 훌륭했다"고 말했다.

글렌 박사는 "기내에서 의사를 호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굉장한 응급 상황으로 보였다"고 당시를 묘사했다.

아기의 탄생은 한 탑승객이 촬영한 '틱톡' 영상으로도 전 세계에 공유됐다. 승객들은 출산을 알리는 안내 방송에 일제히 박수와 환호로 축하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공학박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20년말 기준 전국 평균 4.8%보다 3.4배 정도 높은 1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 에너지의 생산·소비·관리 체계를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돼 해당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앞으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분산형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역량과 기술·비즈니스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책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 및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가칭)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17개 광역자치체의 지역에너지 계획의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편익지원제도, 에너지수요의 지역분산 지원제도 추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의 시장 참여를 위한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 및 한국형 통합발전소(VPP)제도 도입을 추진해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한 계통인프라 구축 및 유연성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별 관리를 위한 배전계통 운영제도 도입을 추진해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가 제1호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다면 분산에너지 설비만 설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실증단지가 돼야 한다.

열린마당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김금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가사노동과 육아문제도 힘들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터로 향하는 숨겨진 일상들을 보낸다.

서귀포시는 2021년을 '일·가정 양립 가정문화확진'의 해로 정하고 상정해 현장을 체험토록 할 계획이다. 아이는 사랑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볼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고 돌봄이 쌓일수록 더더욱 사랑받게 된다.

5월 가정의 달에...



조은아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효도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섬기는 일이다. 하지만 요즘의 효도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일이다.

부모님이 열이면 열자식 하나같이 지극 정성으로 아낌없이 키웠듯이 우리 역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걸 힘들다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

어려서부터 나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그 덕분인지 아버지의 사랑을 번 뇌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은화한 성격을 지니신 아버지는 책을 항상 가까이 하셨고 틈틈이 좋은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을 사랑하셨다.

아버지가 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지만, 나 역시 초등 세아이의 워킹맘으로서 쉴 틈 없이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챙겨드리고 섬기는 일은 소홀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나는 효도의 달이라고 말하고 싶다. 평소애 일이 바쁘다고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가 말동무 해드리고 마음을 나누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싶다.

자주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약한데 그 덕분인지 아버지의 사랑을 번 뇌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자주 찾아 뵈고 위로해 드리면 효도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골덴라사 advertisement featuring two men in suits, a map of Jeju Island, and contact information.

시민장 의사 advertisement with a large title, address, phone numbers, and a map of the location.